

## 잡다한 일상에서 '서로'를 발견케 한 길잡이

최정현 · 변재란 부부가 꼽은  
'답사의 길잡이' 《동해 · 설악》 편

"책을 뒤적이며 꿈꾸는 여행은 황홀합니다. '아직도 볼 게 남았느냐'는 탄박을 듣기도 하지만 갈 곳을 생각하며 책을 읽는 것도, 돌아와 다시 한번 추억을 되새김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공인된 '평등부부', 영화평론가 변재란 · 만화가 최정현 부부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뜻밖에도 돌베개에서 나온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의 《동해 · 설악》편이었다. 두 사람은 애정과 추억이 함께 담긴 책 두권을 두고 망설였다. 다른 한권은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학민사). 결혼 후 서가를 정리하면서 서로 한권씩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가까운 사람에게 한권을 줬다.

《동해 · 설악》에 더 끌린 것은 시대인 강릉을 찾을 때마다 좋은 '길잡이'가 돼 주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곳,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 의미가 남다른 곳, 책은 그런 것을 살살이 보여준다. 하지만 두 사람이 책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르다. 변재란씨는 열심히 예습하는 스타일이고, 최정현씨는 복습하는 편이다. 책을 들고 길을 나서면 지도를 보고 안내하는 것은 아내다. 별미 음식점이나 쾌적한 숙소를 미리 알아놓거나 유적에 얽힌 역사와 사연을 전하는 일도 그렇다. 반쪽이 최정현씨는 운전을 하며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즉흥적으로 고르는데, 희한하게도 책에 언급될 만큼 중요하거나 수려한 곳인 경우가 많다. 돌아와서 복습을 하며 자신의 심미안에 으쓱해 한다.

책이 이끄는 대로 강릉부터 경주까지 해변을 따라 가본 적도 있고, 분단으로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관동팔경도 구경했다. 시대 근처의 고연사라는 절도 새롭게 봤다. 남자가 집에서 일을 하고, 여자가 바깥 일이 많으니 처음에는 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그럴 때 여행은 잡다한 일상에 묻혀 있던 서로를 다시금 발견케 하는 계기가 되곤 했다. 영화배우 황정순씨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강의하라, 박사논문 준비하라 정신없는 아내의 서가는 작업실로 독립해 나갔다. 최정현씨의 작업실을 겸한 서가는 당연히 작다. 그래서인지 서가보다 집안 구석구석 최정현씨가 직접 만든 깜찍 놀랄 만한 물건들에 눈길이 간다. 하도 묻는 이가 많아서 설계도, 만드는 법, 재료 구하는 법을 망라한 책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 이현주 기자

### 취재 파일

#### 오래된 책 냄새가 나지 않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한 권의 책을 찾아 대형서점과 헌책방을 돌아다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책을 발견해본 사람은 이 기분을 알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구하기 힘든 책을 읽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90년 이전에 간행된 도서는 모두 폐가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검색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청구기호를 알아낸 뒤, 한 번에 3권씩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검색시스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서명 · 저자명 · 주제어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주제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 찾고자 하는 자료를 알아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둘째,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다. 예컨대 폐가식으로 보관되는 98년 이전 잡지의 경

우, 한번에 3권 이상 열람할 수 없다. 잡지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심쩍은 기사까지 합쳐 관련기사 3개를 읽기 위해 책을 찾아 오는 동안 2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낭비다.

셋째,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일요일에는 90년대 이전 발행도서 열람을 담당하는 중앙대출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일요일에 이용하는 직장인에게 국립중앙도서관은 신간만 구비해놓은 대형서점이나 마찬가지로. 헌책방도 줄어 중고서적의 순환 과정이 사라진 우리에게 도서관은 소중하다. 하지만 정작 구하기 힘든 자료에 대한 접근은 어렵게 만들고 서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책만을 전면에 내세운 방식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래저래 그곳에서 오래된 책의 냄새를 맡기는 어렵게 됐다.

— 김연수 기자